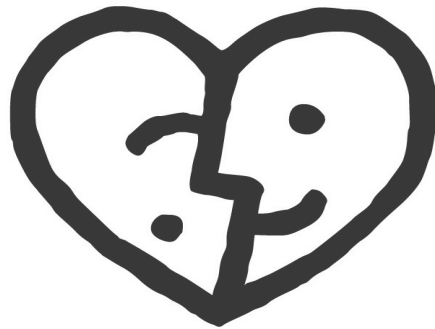


제 30회 정기포럼

“여성 자원봉사 지도력 증진 방안”



- 일시: 2002년 5월 17일 금요일 14시 ~ 17시
- 장소: 대구시문화예술회관
- 주최: 한국자원봉사포럼
- 주관: 대구광역시종합자원봉사센터
- 후원: 여성부, 삼성사회봉사단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 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하였습니다.

□ 임원구성

·회장 : 조해녕(前 총무처, 내무부장관)

·총무 :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김길수(새마을중앙연수원교수)

김연수(다일복지재단 이사)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경춘(삼성사회봉사단 상무)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박재진(중소기업은행 연수원 교수)

이강현(블런티어 21 소장)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최성균(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최순식(성남시 부시장)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자원봉사포럼 명예회장)

·간사: 박신영(前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조교, 남서울해외봉사단)

□ 사무국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 차 례 -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현장..... 2

발제 3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도력 증진방안”

-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 연구부장)

지정토론 1.....

“ ” - 김길수(성남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지정토론 2.....

“ ”- 정재호(대구시 가정복지회 사무총장)

지정토론 3.....

“ ” - 구정숙(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포럼 일정

▶ 개회식(14: 00 ~ 14: 20)

사회: 이성철(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국민의례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인사 ——조해녕(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전 총무처·내무부장관)

·축사 ——서명선(여성부 대외협력국장)

▶ 주제발표(14: 20 ~ 15: 20)

·주제: 여성 자원봉사 지도력증진 방안

발제자: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 연구부장)

▶ 휴식 --- (15: 20~15: 40)

▶ 지정토론(15: 40 ~ 16: 20)

·토론자:

김길수(성남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정재호(대구시가정복지회 사무총장)

구정숙(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 전체토의 및 폐회 (16: 20 ~ 17: 00)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와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도력 증진방안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

1.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도력 증진의 필요성

- 시민사회로서의 성숙
 - 21세기는 시민사회의 특성이 보다 강화되는 시대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됨. 따라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급성장할 것임.
- 세계화 추세 속에서 비정부조직간 (NGOs)의 역할 및 중요성의 증대
 - 세계화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가 가능하고 일국 단위의 국가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범 세계적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비정부조직들(NGOs)의 임무가 막중해짐.
 - 여성 또한 자유롭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에의 활발한 참여와 연대가 증대할 것임.
- 시민운동을 통해 자본의 영향력과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시민사회 영역 확대와 여성의 역할 증대
 - 시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사적부문이나 전통적인 성 역할에 준하여 한정되거나 분리되어졌으나 향후 여성의 영역을 확대하고 시민운동 전반에 여성을 통합하여 가부장적 요소를 극복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꾀해야함.
 - 1980년대 세계여성 NGO 활동은 여성의 주류화 (mainstreaming)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1990년대는 여성의 세력화(empowement)에 초점이 주어졌음.
- 시민운동으로서의 여성자원활동 확산
 -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활동으로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제 3의 영역으로 발달하게 되었음. 특히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해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정책과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여성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장혜경·김영란(2000)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현재 활동 중인 활동자들은 보다 다양한 자원활동 분야와 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영란·장혜경, 1999) 이들 자원봉사활동자의 지도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함.

2. 여성자원활동 조사결과와 외국사례

- 전업주부조사 : 서울시 거주 업주부 8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는 전체의 15.4%로 128명이었으며 51.4%가 활동을 희망하였음.

<표 1> 현재 자원활동 여부 및 활동 희망 여부

자원 활동 여부	빈도수 (%)	자원 활동 희망 여부	빈도수(%)
한 다	128(15.4)	있 다	426(51.4)
안 한 다	705(84.6)	없 다	402(48.6)
전 체	833(100.0)	전 체	828(100.0)

- 활동자들의 경우 활동하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1주일에 1회가 60.3%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2-3회인 사람도 34.4%를 차지함. 주당 평균 활동 시간은 2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이상을 활동하는 사람도 23.1%였음.
- 활동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9.7%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가 11.7%, 교육이 9.4%, 환경이 5.5%로 나타남. 자원활동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향후 활동 분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사회복지로 전체의 24.9%였으며 보건의료, 교육, 소비자보호 분야의 순이었음.

<표 2> 현재 자원활동 분야 및 희망활동 분야 (복수응답임)

분야	현재 활동 분야 빈도수(%)	희망활동 분야 빈도수(%)
사회복지	41(28.3)	263(24.9)
보건·의료	21(14.5)	157(14.9)
문화·예술	5(3.4)	49(4.7)
스포츠·레크레이션	7(4.8)	75(7.1)
방법·치안	7(4.8)	31(2.9)
환경	12(8.3)	93(8.8)
교통	10(6.9)	47(4.5)
재난구조 및 구호	1(0.7)	16(1.5)
교육	17(11.7)	147(13.9)
소비자보호	2(1.4)	107(10.1)
정치	1(0.7)	24(2.3)
행정	6(4.1)	34(3.2)
기타	15(10.3)	13(1.2)
전체	145(100.0)	1.056(100.0)

- 자원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수가 ‘자녀 양육으로 바빠서’, ‘시간이 부족해서’,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 이며 그 외에 활동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건강이 나빠서’ 등이 있음. 따라서 자원활동을 하고 싶은 주부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주며 (예컨대 자원 활동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으나 가사와 자녀 양육으로 시간이 없는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활동 유형개발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의 마련)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7.6%로 자원활동자 증가의 가능성이 예측됨. 따라서 예측됨.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이끌어내고 원하는 자원활동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이 요구됨.

○ **여성자원활동자조사** : 서울경지지역 (자원활동 수요기관 및 센터 소속) 활동자 355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활동하는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복지로 54.8%였으며 보건·의료 17.3%, 문화·예술 10.4%, 교육 8.8%, 환경 5.2%, 소비자분야가 2.7%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활동 희망 영역은 사회복지 42.7%, 문화·예술 21.4%, 보건·의료 19.8%, 교육 10.4%, 소비자 2.7%, 환경 2.3%임.
- 활동자의 76.8%가 현재 하고있는 활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하였고, 3.7%만이 다른 활동으로 바꾸기를 희망함. 주 1회 참여자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봉사하는 사람은 17.6%였음. 1회 평균 활동시간은 3시간 미만이 55%였으며 4-5시간이 25.1%, 6시간 이상이 19.9%로 나타남.
- 활동 참여동기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36.1%로 가장 높았고, 22.4%는 ‘자기발전을 위해서’였으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동기가 17.3%,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도 13.4%로 나타났음.

- 만족도면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하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자원활동과 가정(직장)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서’와 ‘새로운 지식·기능을 익히고 싶지만 어려워서’가 각각 23.4%였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사비의 지출이 부담스러워서’가 19.2%,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가 10.6%, ‘활동내용이 맞지 않아서’가 8.5%로 나타남.
 - 참여경로면에서 응답자의 34.5%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친구, 친지, 이웃 등)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단체(종교단체, 부녀회, 각종 취미클럽 등)의 회원으로서가 19.5%, 기관(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의 구성원으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14.1%로 사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 교육관련 사항으로 응답자의 62.6%가 자원봉사활동 관련 교육경험이 있었으며 과반수 가량이 1-2회 경험을 가짐.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56.5%는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41.7%는 약간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함. 한편 자원활동자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욕구가 매우 높았음.
 - 자원활동자가 희망하는 연간 교육횟수는 연 1-2회가 64.3%였으며 연 3-4회라고 응답한 사람도 29.0%를 차지하였음. 자원활동자가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각 분야별로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이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간관계형성방법’ 및 ‘갈등해소방법에 대한 교육’이 26.9%, ‘자원활동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의식교육’이 14.6%로 나타났음.
 -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활동 교육의 제공’이 2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자원활동프로그램의 제공’이 24.2%, ‘활동자에게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의 배치’가 15.5%, ‘활동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평가’가 10.2%, ‘봉사자 소모임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8.2%를 차지하였음. 한편 자원활동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책임의식의 증진’이 32.3%, ‘자신의 능력과 기술(전문성)에 적합한 자원활동의 지속’이 26.6%, ‘자원활동관련지식의 습득’이 23.7% 였음.
- **두 조사결과의 함의** : 여성들의 자원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영역의 개발과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자원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원활동전문가가 필요한데 특별히 지도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자원활동지도자 양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함.
- **외국사례** : 외국의 경우 자원활동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의 경우 각 나라마다 전통의 차이가 있지만 자원봉사가 국가적으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임.

-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자원봉사가 점점 더 시민의 보편적 활동이 되고 있으며 제3섹터로서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참여율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러나 자원봉사의 역사가 오래되고 자원활동이 시민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구미 여러 나라의 경우 우리 나라처럼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정책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은 거의 없음. 물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 있고, 여성단체에서의 자원활동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나 여성을 별도로 모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서구의 자원활동은 종교적 전통과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임.
-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보다 참여율이 높으며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사회적 서비스와 교육 분야에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외국의 여성자원활동 사례

구분		미국	영국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체계		자원봉사진흥법 국가봉사단 춧불재단/전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기업참여	내무부 자원봉사과 자원봉사안내소 자원봉사센터
여성의 자원봉사참여현황		참여율 51%(여) 44%(남)	참여율 36%(여) 31%(남)
활동영역 및 프로그램 사례	사회복지	Women in Community Service	The Women's Resource Center
	문화예술	The Tech	
	교육	San Francisco School Volunteers	West of England School
	보건의료	Zen Hospice Project	Saint John Breastfeeding Alliance
	소비자	American Budget Credit Debt Services, Inc.	
	환경	Hands on Atlanta: Vines Botanical Garden	Global Resource Action Center for the Environment (GRACE)

3. 지역사회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지도력 증진방안

○ 활동영역의 확대

- 박영란·장혜경(1999)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현재 활동분야 비율이 큰 순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환경, 소비자였음. 향후 활동 희망영역에 있어서

도 이러한 순위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소비자, 환경 분야가 모두 확장 가능성이 있음. 사회복지영역에 여전히 치중되어 있기는 하나 각 영역별로 상담, 안내와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방법, 재난구조영역에서의 관심도 나타나 다양함을 보여줌.

- 이를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개발하고 확대시켜야할 것임.

♣대구광역시의 2001년 주요업무로는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실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무료급식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불우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상설알뜰시장운영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전개, 시민의식개혁운동전개, 여성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활동평가 등임

♣우수자원활동센터 운영사례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자원활동센터) : 봉사자 자질향상 사기진작 (봉사자교육, 봉사자 사기진작대책), 분야별 봉사활동 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기관, 의료시설기관, 공공이용시설기관, 기금마련사업 활동 등.

<표 4> 자원활동 희망 영역 및 구체적 활동의 우선순위

활동희망 영역 및 구체적인 활동의 우선순위			
사회복지	1. 상담서비스(청소년, 여성, 노인 등)	문화예술포럼	1.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에서 전시안내
	2.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의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지원활동		2. 지역사회의 문화행사기획 및 운영
	3.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보조		3. 문화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
	4.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자원활동자 관리		4. 복지시설, 소외지역에서 무료공연
	5. 무료급식		5. 문화재 관광안내
	6. 시설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절교육		6.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에서 전시물 관리
	7.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운동, 마사지 제공 및 보조		7. 도서관 도서정리
	8.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녹음 및 컴퓨터 입력서비스		8. TV, 라디오 등 매체문화 모니터링
	9. 외출보조		9. 지역내 유해 문화환경 조사 및 개선활동
	10. 시설에서 취미활동 지도		10. 구민회관, 여성회관에서 무료작품전시
	11. 레크리에이션 지도		11. 문화재 보호 캠페인
	12. 시설의 환경관리(시설보수, 미화작업 등)		12. 문화행사관련 정보지 발간
보건의료	1. 호스피스 활동	교육	1. 학생상담활동
	2. 간병서비스(사회복지시설,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		2. 교육관련 단체에서 자원활동자 관리
	3. 환자의 취미활동 도와주기(병원, 정신건강센터 등)		3. 학업부진학생 지도
	4. 의료봉사(사회복지시설, 소외지역 등)		4. 학원 폭력예방사업
	5. 보건의료시설의 서비스 모니터링		5.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6. 보건의료시설에서 업무보조		6. 성인교육(한글, 컴퓨터 등)
	7. 보건의료시설에서 자원활동자 관리		7. 교육관련 단체에서 업무보조
	8. 지역사회 보건환경 조사		야학
	9. 보건교육(성, 위생, 약물 오·남용방지, 성병·에이즈 예방교육 등)		8. 기타 (학교의 위험시설, 부족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희망자가 없음)
	10. 건강관련 캠페인(장기기증운동, 헌혈운동, 에이즈 예방운동 등)		
	11. 환자에게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		
소비자	1. 불량식품·상품 접수 및 반환, 보상활동	환경	1. 쓰레기 줍기
	2. 불량식품 불매운동		2. 쓰레기 분리수거
	3. 소비자 의식교육(과소비추방, 건전소비운동 등)		3. 환경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
	4. 소비자 관련단체에서 업무보조		4. 환경 관련단체에서 자원활동자 관리
	5. 소비자 관련단체에서 자원활동자 관리		5. 지역의 환경실태 정보제공
	6. 물가오름세 막기 운동		6. 기타 (낙서지우기, 벽보제거, 새집 달아주기, 사냥뺨 제거하기, 환경교육, 강, 산림 등의 오염감시, 대기, 수질 등 오염도 조사, 노후차량, 대기오염업체, 폐수방류업체 카메라고발, 나무, 꽃 심기, 벽화그리기, 환경 관련단체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은 희망자가 없음)
	7. 기타 (과소비/불량상품 판매 현장조사, 소비자 관련단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은 희망자가 없음)		

○ 홍보·교육프로그램 강화

- 홍보와 교육내용은 동시에 시행됨이 바람직하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홍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교육훈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김영호, 1999) 홍보·교육훈련은 지역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동기조성과 그 필요성의 공동인식을 위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에 홍보매체를 확충하고 알기 쉬운 홍보방법을 개발하여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사회전반에 널리 알리고 감동적 사례를 신문이나 TV등에 소개하도록 함. 이를 통해 비단 여성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주민의 일원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 즉 교육적 의미와 깨달음과 감동·감격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더불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홍보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되는 것임.

♣ 홍보·교육훈련프로그램의 예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나 자원활동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각종의 복지기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의 적극적 활용
- 신문·문학작품·TV·라디오·영화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원활동의 발전적 실례 소개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지역사회와의 제휴를 강화하여 사회복지 교육·평생 복지교육·지역사회교육을 통해서 또 자원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개인 혹은 가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원활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임.
- 종교기관·문화단체·일반시민단체·기업체 및 노동조합 등과 같은 각종 단체의 홍보물을 활용하고 이들의 협력을 얻음.
-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의 모임이나 그룹 등을 통해서 영화나 슬라이드의 영사회를 갖거나 좌담회 등을 개최. 또한 포스터·반회보·게시판공고·읽기 쉬운 전단을 만들어 각 가정과 집단에 발송하여 자원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원.
- 사회복지기관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교양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을 자원활동자화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교육훈련 계획 수립.
- 자원활동자가 친구·친지에게 자원활동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게 함.

- 자원활동자 2-3인이 한 조가 되어 주민가정방문, 권유로 홍보
 - 지역사회의 여러 집단과 대중매체와의 공동계획에 따른 홍보·교육
 - 시설견학과 어려운 형편의 가정방문을 통한 체험학습의 기회 마련. ‘일일부모’, ‘일일자녀’, ‘일일형제자매’, ‘일일조부모’ 등의 행사를 통해 일반인과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이나 지방 혹은 전국 자원활동대회라든가 지역자원활동문화 및 복지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캠페인 또는 자원활동바자회 등을 개최.
 - 자원활동에 관한 수기모음집 (사례집)을 만들거나, VTR tape을 제작·배포하여 교육자료·홍보자료로 활용.
 - 기업체·행정 및 공공기관·지역사회 등의 교육과정에 “자원활동이론과 실제”과목을 통한 계속교육 실시.
 - 각 자원활동 분야별로 연구모임을 확대.
- 자원활동 홍보·신청·요청 접수창구의 확대 : 지역사회에서 자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집단)들을 위한 홍보·접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원활동자를 필요로 하여 요청하는 사람(집단)들을 위한 창구를 확대함.

▣협조 창구

- 센터의 소그룹리더의 집 ·119 및 114전화 ·시·군·구청
- 여성단체·부녀회 ·우체국 ·노인정
- 파출소 및 소방서 ·학교 ·지역도서관
- 병원 ·보건소와 약국 ·기업체
- 지역사회복지관·사회복지협의회 ·슈퍼
- 기타 (협조하기로 약속한 집단 및 개인)

○ 소그룹과정의 전문화

- 소그룹과정은 자원봉사자가 소그룹과정을 통하여 자기성찰과 자아실현을 경험케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창조적 능력과 민주적·공동체적 삶의 지혜를 체득케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과정은 자원봉사활동성과 봉사자의 지도력증진의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김영호, 1999).

▣소그룹과정의 의미

- 자원활동의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갈등을 소그룹성원과 자

유롭게 토의하는 과정에서 성원들이 서로 다른 성원들의 의견과 경험·공감하는 내용을 “동료에 의한 슈퍼비전 (peer group supervision)” 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를 토대로 자신의 다양한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자아성찰을 통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인식할 수 있음.
- 더 나아가서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타인의 발언내용에서 얻어 깨닫고 참고할 바가 많으므로, 타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됨.
- “주관적 상호이해”에 의해 서로 이해하고 “사랑의 주관적 공동체”의 기초형성.
- 성원들이 가치창조를 위한 활동목적·목표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
- 실천계획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사고능력과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배양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성숙을 위한 과정.
-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적 사قم의 기회가 되고, 친밀감을 경험하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함.
- 봉사활동에서 보람과 기쁨·만족감을 느낌과 동시에,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신바람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하는 과정.
- 자원봉사활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인식, 자아성숙과 가치적·질적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됨.
- 궁극적으로는 소그룹과정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과 다양한 소그룹과의 협동적 프로그램의 실천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창조의 기초를 확립케 함. 즉 소그룹과정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필요하고 의미있는 존재라는 자기확인·사회심리적 보수와 보상감·가족과 주민 및 사회로부터의 인정과 격려·타인과의 진실한 “너와 나”의 관계형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 소외감의 극복과 민주적 공동체감정 (community sentiment)을 소그룹 과정에서 경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임.

♣소그룹구성과 운영방법

- 자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그룹과정은 필수적임으로 연령별·지적 수준별로 상호 조화를 이룬 구성이 되어야 함 (예를 들어 회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든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그룹의 의미를 정상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출석율도 저조하게 운영상의 문제를 가져옴)
- 모임일정은 소그룹회원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그룹 회원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8-10인이 적당함.

- 소그룹모임에는 기관의 담당지도자 혹은 교수의 동참지도·지원 바람직함.
- 자원활동센터에서의 소그룹은 초기에는 교수 혹은 기관의 담당지도자의 지도와 지원에 의해서 회원들의 안목과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지만 어떤 단계(소그룹의 능력에 따른)가 지나면 소그룹은 회원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기관장과 담당지도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소그룹의 안목과 능력은 그 소그룹의 독자적 철학과 의지로 승화되어야 영구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임.
- 소그룹은 조직으로서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독자적 프로그램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함.

♣소그룹과정을 통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방법

- 자원활동철학과 자원활동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 자원활동자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터득하고 체험한 내용 등을 생각하면서, 소그룹회원들이 자신있고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함.
- 전문지도자는 자원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목표를 근거로 추진되도록 지도함.
- 각자(그룹)가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시작하던지 이를 기초로 점차 가정, 지역사회(타 집단)와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함.

♣실천 과제를 정하는 과정

- 봉사차원의 실천과제를 정하기 위해, 각 팀별로 사전 기관(시설)방문 혹은 지역 사회답사를 정함. 그후, 시설(기관)에서 어떤 일을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요청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함. 요청 받은 일차적인 일을 하면서 그곳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고, 또 우리(각자)가 하고싶은 일을 파악한 후에 기관과 협의 하면서 순조롭게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함). 그 과정에서 실천과제를 정하고 그 실천과제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및 협의, 그리고 우리(나) 소그룹의 실천 의지결단을 가짐
- 실천과제의 목적과 단기목표 및 장기목표를 정함.
- 구체적 실천계획(예산포함)에 따라 회원각자의 역할 분담내용 및 필요한 자원동원방법 연구
- 실천과제의 추진과정 및 구체적 실천내용 검토와 실천
- 실천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차후계획 및 준비사항

♣ 소그룹 프로그램 (활동 시작 후) : 기관의 전문지도자의 전문적 지도 필수

- 활동사례 발표 및 토의과정을 통한 문제처리 능력 향상과 자신감·기쁨·보람·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의 체험. 활동자 각자가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그 사례에 대해 토의할 경우 하나의 케이스를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토의한 다음에 다른 케이스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자원활동 내용을 담은 VTR테이프를 시청하고 토의하면서 자원활동에 공감하고 보람과 활동의욕을 느끼게 함.
- 소그룹과정에 있어서의 상호간 감독은 성원의 문제해결을 돕고 자원개발과 활용 기술을 증진시킴 (예를 들면 한 집단의 경우 담당사례의 의료문제(백내장수술)가 소그룹과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보람과 활동의욕 및 생의 의욕을 느낄 수 있음).
- 역할극과 트레인스토밍방법,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깨달음과 발표기회제공
- 소그룹프로그램에서 건강에 관한 강의 및 사랑의 맛사지 등을 통하여 활동원의 건강과 가정의 복지 및 고객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모임을 거듭하면서 문제를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친밀한 인간관계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 생활정보 및 서비스정보교환을 통한 상호간 질적인 삶을 발전
- 소그룹회원간의 친목의 기회와 기타회원의 필요에 따른 계획 등

- 사례 : 재가노인방문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소그룹구성과 체험학습을 기초로 회원간의 협의에 의해 실천과제 정함

♣실천과제: 개인 혹은 집단으로 홀로사는 노인돕기에서 출발

♣활동과 소그룹과정에서 또 하나의 할 일을 발견함. 이후 소그룹모임 혹은 여러 소그룹이 함께 모임을 갖고 활동내용 및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토의 시작

♣소그룹모임에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내용 (홀로사는 노인돕기, 방문하는일)이외에 소그룹회원 및 타 회원과 협력하여 자신들이 돕는 노인들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생활보호대상의 여러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생일축하 프로그램 등을 논의, 결정, 실천계획세우기.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이웃노인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 필요시에 서로 전화 및 방문할 수 있고, 노인들 스스로 상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발전 및 노인들 스스로가 상부상조하는 풍토조성의 계기마련)

♣회원들(노인)과의 소그룹과정에서 우리는 이웃의 노인을 돕는 일과 생일축하모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가정(노인), 사회생활에 대한 자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즉 우리 가정의 어른과 노인정의 침구, 그리

고 자녀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태도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통해 가정 복지와 연계.

•외롭게 홀로사는 노인들의 생일축하모임을 노인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과 일반가정의 노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폭넓은 노인복지발전의 계기마련.

•지역사회의 주민 혹은 노인정, 단체(조직)와 다양한 계층이 공동으로 이웃의 홀로 사는 노인돕기 및 생일축하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더욱 발전적으로 지역사회전체의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전체주민의 협동참여의 계기마련은 물론 지역사회 어른이신 노인의 자기실현 및 협동적 노인복지참여

•특히 학교에서의 활동과 연계시키는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자아정체성 확립, 그리고 학교에서의 왕따문제를 비롯한 학교폭력문제를 치료 예방함을 물론, 학교의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적 효과 기대할 수 있어 바람직한 학교공동체 변화발전 계기

○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 자원봉사활동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희망자 혹은 활동자들 중 일정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정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이성철, 2001).

[참고자료]

김영호 (1999), “21세기 더불어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

「효율적인 여성자원봉사활동 방안모색」,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박영란·장혜경 (1999), 「여성자원활동의 전문영역개발연구」, 여성특별위원회(현 여성부)

여성부 (2001), 「여성자원봉사 담당공무원워크숍자료집」, 여성부

이성철(2001), “자원봉사활동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방안” 「여성자원봉사 담당공무원워크숍자료집」, 여성부

장혜경·김영란 (2000), 「전업주부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여건전망 워크숍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토론 1

○○○○○

김길수(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토론 2

○○○○○

정재호(대구시가정복지회 사무총장)

토론 3

○○○○○

(부산광역시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소장)

포럼 (회원)입 회 신 청 서

회원가입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포럼에서 발간되는 소식지를 격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기포럼,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번의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전화		팩스	
	주택	주소	우편번호: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2. . . . 서명: _____					

No 02-_____ (포럼용) 영 수 증 금 액 : 3 만 원 성명 : _____귀하 기간 : 2002. . . . ~ 2003. . . . 상기 금액을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회비로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 2002년 월 일 한국자원봉사포럼 회 장 조 해 념
--

No 02-_____ (신청자용) 영 수 증 금 액 : 3 만 원 성명 : _____귀하 기간 : 2002. . . . ~ 2003. . . . 상기 금액을 한국자원봉사포럼 연회비로 받았기에 정히 영수합니다. (☎ 02)756-1046 2002년 월 일 한국자원봉사포럼 회 장 조 해 념
--